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5. 27.(수) 14:00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원방향 논의

- 기획처·복지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8차 일정으로서,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 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역필수의료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27.(수), 14:00~16:00 / 세종시청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장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지방정부)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어 왔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 기준, '25년) : (서울) 1.28명 (경북) 0.43명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국립 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6.3.10.)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급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정작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사를 모집할 경우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정부는 ①5극3특 광역권에서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처치가 가능하도록, ②70개 중진료권*에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지역 내에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③시·군·구 생활권에서는 동네에서 30분 안에 기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료권: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또는 묶음(지역필수의료법 제2조)

이어 “지역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토록 개선해 나가되,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보완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	책임자	과 장	이중진 (044-214-2930)
		담당자	사무관	황보환 (hbh1989@korea.kr)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044-202-2670)
		담당자	사무관	이성규 (sklee91@korea.kr)